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프로이트 꿈심리학의 욕동이론 :  
교육학적 재조명

The Theory of Drive in  
Freud's Psychology of Dreams  
: Educational Reassessment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김예린

프로이트 꿈심리학의 욕동이론 :  
교육학적 재조명

The Theory of Drive in  
Freud's Psychology of Dreams :  
Educational Reassessment

지도교수 박종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상담교육)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年 1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김예린

김예린의 교육학석사(상담교육)

학위논문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최 현 주      (印)

審査委員      정 종 원      (印)

審査委員      박 종 덕      (印)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年 1月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프로이트 꿈심리학의 욕동이론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꿈심리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꿈은 비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가치를 규명한 견해 중에서 다수를 이루는 전통적인 견해는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꿈은 생리적인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생활 중의 신체적 자극의 발현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프로이트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꿈을 해석한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꿈은 수면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이 활동하는 방식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 매우 유효한 심리적 활동이다.

프로이트는 다양한 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단지 드러나는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무의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프로이트는 꿈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 사고가 수정되고 변형되어 외현적 꿈-내용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가리켜 ‘꿈-왜곡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꿈-왜곡 현상’을 고려한다면 꿈은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소원 성취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깨어있을 때의 의식 활동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활동이며 따라서 꿈은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꿈의 원인과 형성 기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꿈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은 욕동이며, 우리의 마음은 설사 없이 꿈틀대는 욕동의 장이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프로이트는 꿈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삶을 이끄는 원천적인 힘이 욕동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삶은 이러한 욕동을 사회적 기준에 타협하여 표출하는 장이라고 보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바로 이 점에서 프로이트의 꿈심리학은 욕동 이론이요, 또 삶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이

트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파악한 욕동은 심층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때로 본능과 혼동된다. 그러나 욕동과 본능은 마음의 상이한 차원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에릭슨 역시 자아의 발달 양식을 논의하며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을 더 예리하게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에릭슨은 욕동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그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자아의 발달 양식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이론은 마음을 경험적 차원에 한정하여 해석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식욕, 성욕과 같이 경험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한 가지 차원이며, 어린아이의 무한한 놀이 욕구, 훌륭한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감화력과 같이 경험적으로 지각되지 않지만 마땅히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마음의 다른 한 가지 차원이다. 전자를 가리켜 경험적 차원의 마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후자를 가리켜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이끄는 힘으로서 밝혀낸 욕동은 경험적 차원의 마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험적 차원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근원적인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욕동의 표준이 되는 본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바로 이 본능이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에 해당한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본능에 가장 가까운 특별한 활동이 있다. 종교와 교육이 그것이다. 종교는 경전과 의례를 매체로 하여 본능을 회복하게 하며, 교육은 개념을 매개로 하여 그 본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경전과 의례는 본능을 다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개념은 그 본능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개념을 매체로 하는 교육이 본능을 회복하는 일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종교에 비하여 교육은 본능의 회복에 긴 시간의 노력을 요구할 뿐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육

은 본능을 회복하는 간절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본능은 삶의 주요한 활동인 종교와 교육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고, 또 회복되어 마땅한 마음의 근원적 힘이다.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은 이러한 본능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충분히 밝혀주지 못한다. 이것은 곧, 프로이트가 우리의 삶은 종교와 교육을 통하여 본능을 회복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본능이 현대에 이르러 심리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된 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에 힘입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의도와는 별도로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은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인 본능에 관심을 환기시킨다.

주제어 : 프로이트, 에릭슨, 꿈심리학, 욕동, 본능, 종교, 교육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꿈의 의미와 그 심리적 기제 .....	5
1. 꿈의 의미 : 생리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	6
2. 꿈의 심리적 기제 : 욕동의 기제 .....	14
III. 꿈이론의 재조명 .....	28
1. 꿈의 두 가지 원천 : 욕동과 본능 .....	29
2. 꿈심리학의 한계와 가능성 .....	42
IV. 요약 및 결론 .....	50
참고문헌 .....	57
Abstract .....	60



## I. 서론

꿈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 그러나 꿈을 신의 계시로 여겼던 고대인들에게 꿈은 단순한 이야기 소재를 넘어서, 그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sup>1)</sup> 그러던 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을 신의 계시로 간주하지 않을뿐더러 평범한 일상을 예측해주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고 자신의 꿈의 내용을 궁금해한다. 시대의 추이와는 별도로, 사람들에게 꿈은 그 신비적 성격으로 인하여,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물론 고대 이래로 꿈은 그 성격이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학자들은 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의 성격을 밝혀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꿈의 성격을 해석하는 방식과 대중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들은 꿈이 지니고 있는 ‘신비적 색채’를 걷어내는 것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으로 둔 것이다. 연구자들에게 꿈이 지닌 신비적인 색채는 그들의 연구 방향-과학적·분석적 사고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꿈의 내용 중에서 얼른 납득되는 것-경험적 요소-만을 취하면서 꿈으로 드러나는 그 이면의 심리적 역동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꿈이 지닌 신비적인 색채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연구 대상으로서의 꿈이 지니는 가치가 퇴색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꿈에 관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꿈을 연구하고자 한 학자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이다. 프로이트는 기억에 남거나 보이는 그대로의 꿈의 내용만을 해석하지 않고, 그 이면의 것에 관심을 둔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

---

1) 성경에 예시된 ‘수태고지’와 그 세속적 표현인 태몽은 그 한 가지 사례이다.

하는 꿈의 이면에 꿈의 특수한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탐구의 노력을 보여주는 프로이트의 대표적 저서가 바로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 1953)이다.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다양한 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의 내용과 그 내용에 담긴 꿈의 역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꿈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꿈의 원인은 생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며, 꿈의 내용은 단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풍부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은 깨어있을 때의 의식 활동과는 구분되는 고유한 심리적 활동이며 따라서 꿈은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가진다.

프로이트는 꿈을 신비적 영역으로 파악한 그 이전의 관점을 부정하면서 꿈의 원인과 형성 기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로이트는 꿈의 원인과 다양한 형성 기제를 밝힘으로써 깨어있을 때의 의식 활동과는 구분되는 꿈의 특수한 심리적 활동 그리고 신의 영역과는 구분되는 꿈의 과학성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꿈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욕동이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프로이트는 의식의 개입이 최소화된 수면 중의 인간의 활동-꿈-을 연구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원천이 되는 힘-욕동-을 밝히고, 그 힘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방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프로이트의 꿈심리학은 욕동이론이요, 또 삶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에릭슨(Eric H. Erikson, 1902-1994)의 이론은 자아의 발달 양식을 논의하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더 예리하게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에릭슨이 밝히고 있는 욕동은 프로이트가 밝히고 있는 욕동과 그 차원을 달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에릭슨은 욕동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그 완전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자아의 발달 양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함께 꿈의 신비적 색채를 걷어냈다는 점에서는 주목의 대상이 되지만, 욕동을 경험적 차원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유사한 한계점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와 에릭슨은 경험적 차원에 국한하여 욕동의 의미를 해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과연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이 경험적 차원의 욕동에 한정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힘을 지각되거나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에너지의 정도나 작동하는 방식이 무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음을 경험적 차원에서만 규명하고자 하였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동은 지각이 가능한 경험적 차원의 마음이지만, 이러한 경험적 차원의 마음으로 인간의 근원적 힘-본능-자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것의 표준이 되는 차원의 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경험적 차원의 표준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한계로 인하여 본능을 경험적 차원의 힘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경험적으로 지각 가능하거나 증명해 내지 못한다고 하여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훌륭한 사람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화력과 같은 차원의 마음, 지각되거나 경험되지 않는 것이지만, 마땅히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차원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가?

만약 경험적 차원의 표준이 되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의 본능이라면 본능의 회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본능의 형이상학적 차원이 두드러지는 것이 교육적 맥락이다. 교육은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을 획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교육의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과-더 정확히는 개념-이다. 교육에 의해서 본능에 이르도록 해주는 교과는 형이상학적 차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바로 이 점으로 인하여 교육이 본능의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을 기르는 데에 더욱 간절한 통로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프로이트의 꿈심리학에서 꿈의 원인과 그 형성 기제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어서 프로이트가 꿈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욕동이 과연 삶을 추동하는 근원적 힘으로서 충분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를 규명하는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토픽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꿈의 의미를 생리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꿈이 형성되는 기제를 살펴본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꿈의 의미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고, 꿈이 형성되는 기제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이 기제는 곧 욕동의 기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이상 2장). 다음으로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꿈의 원인인 욕동을 살펴본다. 이때 꿈의 원인으로서 욕동이 가지는 한계를 본능과 비교하여 밝히겠다. 욕동의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통하여 꿈심리학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와 동시에 꿈심리학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 또한 규명될 필요가 있다(이상 3장). 명백히 프로이트의 꿈심리학에서의 욕동 개념은 본능에 비하여 삶을 추동하는 근원적 힘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욕동 개념은 본능의 존재를 짐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본능을 회복하는 길은 교육적 전달 사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꿈심리학은 교육학적으로 재조명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 Ⅱ. 꿈의 의미와 그 심리적 기제

꿈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인간에게 꿈은 어떠한 노력 없이도 저절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익숙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깨어있을 때의 정신 활동과는 다르게, 그 내용이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낯선 것이다. 꿈의 이러한 성격-비일관성-으로 인하여 학문적 영역에서 꿈의 위상은 학자마다 상이하게 받아들여졌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꿈이 비과학적 연구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는 달리 프로이트는, 꿈은 과학적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꿈에 관한 기존의 견해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꿈은 생리적인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생활 중의 신체적 자극의 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꿈이 연구대상으로서 지니는 가치는 그 꿈이 신체적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신생활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리적 출혈, 염증 등에 비하여 사소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에 반해 프로이트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꿈을 해석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수면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이 활동하는 방식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 매우 유효한 심리적 활동이다. 다시 말하여 꿈은 임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제를 거치며 형성되는 매우 치밀한 심리적 활동의 결과인 것이다.

위에서 꿈을 삶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인간의 꿈을 구성하는 내용은 낮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 또는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 등이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꿈은 깨어있을 때의 정신 활동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꿈이 비일관적 성격을 띤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비과학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 이론적 설명이 필요한, 인간에게 고유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꿈

을 해석하는 심리학적 관점은 꿈의 고유한 정신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심리적 기제-을 밝히는 데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1. 꿈의 의미 : 생리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 수면 상태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정신 현상-꿈-에도 원인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꿈은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 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오직 꿈꾼 이의 진술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데, 꿈꾼 이조차도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고, 완벽하게 기억해낸 꿈이라 할지라도 그 순서나 의미는 왜곡되어 있으므로 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꿈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꿈을 영적인 대상으로 보았던 고대에는 꿈의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고대인들은 꿈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꿈의 원인은 인간이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신이 계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꿈이 생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연구자들은 꿈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꿈의 원인을 생리적인 것에서 찾는가, 심리적인 것에서 찾는가에 따라 꿈의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밝혀낸 꿈의 다양한 원인은 네 종류-외적(객관적) 감각 자극,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 내적(기관) 신체 자극, 순수한 심리적 자극원-로 분류될 수 있다. 프로이트가 들고 있는 이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순수한 심리적 자극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원인들은 주로 생리학적 연구가 관심을 두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꿈을 생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본다. 이때 꿈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자극은 외부 환경에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꿈꾼 이의 심리적 의도와는 무관하다. 수면 상태의 인간에게 어떠한 생리적 자극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완벽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테지만, 실제로 모든 자극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인간은 수면 상태에서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꿈의 원인을 생리적인 것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꿈은 인간의 수면에 유익하지 않은 방해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수면 상태에서의 생리적 자극은 어째서 생리적 징후가 아닌 심리적 징후로 표출되는가?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수면 상태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수면 상태에서 인간의 감각 활동과 정신 활동은 깨어있을 때와 상반된 특성을 보인다. 수면 상태의 인간은 깨어있을 때 감지하지 못했던 여러 감각 인상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그 다양한 자극을 깨어있을 때만큼 분명하게 구분하거나 해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수면 상태에서는 인간이 생리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예민하지만, 그 자극을 처리하는 데에는 둔감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꿈은 생리적 자극을 원인으로 하여 생성된 것이지만 심리적 징후로 꿈에 재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환상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생리학적 관점이다. 다시 말하여, 생리학적 관점에서 꿈은 생리적 자극이 정신 기관에 만들어 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앞의 생리학적 관점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의 「자연학」에서 ‘꿈의 내용은 순전히 가상이고 착각’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비록 수면은 지극히 유쾌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제반의 쾌락을 경험하지만, 잠 속의 상념은 단지 허상일 뿐이요, 오직 깨어있을 때의 상념만이 현실인 것이다. 잠자는 것과 깨어있음의 차이는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그 정신이 적어도 때때로나마 현실을 포착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항상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꿈의 내

용이란 순전히 가상이고 착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잠과 비슷한) 죽음을 꺼려한다는 것은 영혼이 지식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영혼이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둡고 불확실한 것을 피하며, 밝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그 속성이기 때문이다(Aristoteles, Fragments, 55: Zemb, 1961/2004: 42, 재인용).

꿈에 관한 이 생리학적 관점은 연구자들이 꿈의 원인-생리적 자극-과 꿈의 내용-정신적 표상 활동-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불을 차내어 몸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우, 옷을 제대로 못 입어 당황하는 꿈을 꾸고, 치아가 자극이 되는 경우, 이가 빠지는 꿈을 꾸는 등 여러 사람이 반복하여 꾸는 꿈에서 그 원인과 내용은 일치하는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전형적인 꿈 외에, 수면 상태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꿈에서 그 원인과 내용 간의 관계를 전부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떠한 질서나 규칙도 따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며, 꿈속 사건들은 꿈 끝 이의 관심사와 전혀 무관하거나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로 내용이 구성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꿈의 비일관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꿈의 원인과 내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연구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리학적 연구는 꿈의 그 수수께끼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sup>2)</sup>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악기를 더듬는 것’과 같다는 비유는 옛날부터 꿈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비유를 보면 대부분의 정밀 과학 옹호자들에게 꿈-활동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극명하게 알

---

2) 여기에서 언급한 생리학적 연구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자주 거론되는 슈트림펠(Strumpell)의 연구 중, 「꿈의 본성과 기원」을 주로 참조한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슈트림펠은 생리학적 연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현대심리학의 서막을 연 분트(Bunt) 또한, 꿈에 관한 한 슈트림펠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Freud, 1953/2020: 56).



수 있다. 그들의 견해는 꿈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연주자의 열 손가락이 무슨 수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Freud, 1953/2020: 116)?

과연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열 손가락이 악기를 더듬는 것과 같다’면 꿈을 평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시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위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음악을 전혀 모르는 연주자의 열 손가락’이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생리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며, 꿈의 수수께끼를 밝히는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생리학적 연구가 아닌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꿈의 심리적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이트는 일단 이전의 생리학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꿈의 심리적 특수성-깨어있을 때 정신 활동과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전의 생리학적 연구가 밝혀낸 꿈의 심리적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꿈은 상징으로 사고한다는 것, 2) 이 상징은 꿈꾼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것, 3) 수면 상태에서 꿈꾼 사람은 이 상징을 실제적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4) 수면 상태에서도 정신 활동의 일부는 지속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꿈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심리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꿈꾼 사람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징을 실제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질문이며, 수면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정신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떤 심리적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 질문이다.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수면 상태의 정신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차단된 채, 감정과 욕망, 관심 등 의식적 행위들이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본다. 이 때문에 수면 상태의 정신은 환각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는 것이 생리학적 연구의 관점이다. 수면 상태에서의 정신 활동은 기껏해야 재현 능력, 기억력에 불과하고 논리적 작업이나 의식의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수면 상태의 정신이 생성하는 꿈도 심리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리학자들은 간주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수면 상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정서가 있다는 점, 그 정서를 직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꿈의 내용은 분석에 의하여 생생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꿈의 심리적 가치를 예고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깨어있을 때의 정신 활동과 비교하여 꿈에서 펼쳐지는 정신 활동은 원시적 수준-생리학자들이 밝혀낸 꿈의 심리적 가치, 즉 꿈은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초월적 수준-대중들이나 일부 철학자가 믿고 있는 꿈의 심리적 가치, 즉 꿈은 특정한 정서의 표출이라는 것-까지 모든 범주의 정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처럼 수면 상태의 꿈이 무한한 정신 활동을 펼치는 장이라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수면 상태에서는 정신 활동의 비판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깨어있을 때의 인간의 정신 활동은 의식적 검열 작용을 거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정신을 두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고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수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비판 및 검열 기능이 느슨해지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꿈에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표상'은 깨어있을 때의 의식에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마 의도할 수 없었던 표상'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깨어있을 때 이성적·도덕적 판단에 묶여있던 정신 활동은 수면 상태에 이르러서야 생명력을 얻고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런 만큼 수면 상태의 정신이 생성하는 꿈은 깨어있을 때의 정신 활동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고유한 심리적 가치를 가진다고 프로이트는 간주한다.

연주자의 손 대신 외부 충격을 받고 제멋대로 울리는 악기 소리에 꿈을 비할 수는 없다. 꿈은 의미 없이 부조리한 것도 아니며, 풍부한 우리 표상들의 일부가 잠자는 동안 다른 일부가 깨어나기 시작해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심리적 현상이며, 정확히 말해 소원 성취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동안의 정신 활동 속에 배열될 수 있으며, 아주 복잡한 정신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Freud, 1953/2020: 169).

앞에서 꿈은 특정 정서의 표출이라고 말했거니와, 그 정서는 소원 성취에 해당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관점이다. 꿈의 외현적 내용만 들여다본다면 꿈은 일관성 없이 '제멋대로 울리는 악기 소리'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꿈의 내용과 더불어 꿈의 뒤편에 숨겨진 어떤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프로이트는 강조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의 뒤편에 놓인 것은 꿈꾼 사람의 경험, 정서, 소망 등으로, 꿈은 이 배후의 요소들을 원인으로 하여 '아주 복잡한 정신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완벽한 심리적 현상'이다. 꿈이 '소원 성취'의 과정임을 깨닫는 순간,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던 꿈의 수수께끼는 '깨어있는 동안의 정신 활동'만큼이나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꿈은 단지 '외부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연주자의 손'만이 이뤄낼 수 있는 고유한 '악기 소리'로 비유될 수 있다.

이처럼 꿈이 완벽한 심리적 현상-소원 성취의 과정-이라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꿈 해석이 어렵고, 어쩌다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꿈 해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의 결과-깨어있을 때 허용되지 못했던 이기심의 덩어리가 자신의 소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불편함 때문에 꿈은 더욱 비논리적이고 난해한 특성을 띤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꿈이 특정한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 점은 어린아이의 꿈에서 여실하게

확인된다. 성인의 꿈과 달리, 어린아이의 꿈은 그 내용이 간결하여 꿈이 소원 성취의 과정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은 전날 가고 싶었던 장소에 도착하는 꿈을 꾸고, 아쉬웠던 여행지에 충분히 머무르는 꿈을 꾸며, 먹고 싶었던 음식의 이름을 외우는 잠꼬대를 한다. 어린아이에게는 스스로의 생각을 걸러내는 의식적 검열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망을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꿈속에 표출하는 일이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물론 갈등을 해소하는 꿈과 같이, 성인 역시 아동과 유사하게 소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나 성인의 꿈의 본질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낮에 충족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의식적 소원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도무지 인지할 수 없었던 무의식적 소원이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소원은 의식적 검열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억압되었던 것으로서, 성인의 자아는 이 소원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꿈속에서 이루어진 소원 성취는 꿈꾼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불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꿈을 꾸고 난 후 개인이 만족감을 느끼든 불쾌감을 느끼든 꿈은 그 성격상 개인의 소원 성취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소원 성취의 과정은 무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꿈은 애당초 무의식의 표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꿈이 무의식적 소원성취과정이라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꿈이 인간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또 차지해야 마땅한 것인가. 프로이트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른바 ‘정신’에서 찾으면서 꿈을 그 정신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신은 인간의 의식적 정신 활동과 무의식적 정신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전체로서의 마음 그 자체를 지칭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정신의 두 측면의 관련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꿈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명하는 것도 정신의 개념을 떠나서

가능하지 않다. 참고로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the psyche’는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개념은 프로이트 심리학의 과학적 성격상 그 번역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개념은 정신에 비하여 신을 떠올리게 한다. 영혼은 ‘신의 심리학적 대응물’이다(박종덕, 2016: 44).

이러한 정신의 두 측면 중에서, 의식적 정신 활동은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지각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이와는 달리, 무의식적 정신 활동은 정신세계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말이나 행동과 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각하기가 어렵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러한 무의식 세계는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닿지 못한 개인의 가장 고유한 영역으로서, 정신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바로 꿈을 연구하는 일이 다른 방법으로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무의식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암흑의 세계, 즉 무의식과 불합리성의 세계라는 외관상의 카오스 속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권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주려고 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러한 일은 가능해질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며 확대시키려고 시도했으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애썼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는 우리 영혼의 감춰진 측면들과 익숙해짐으로써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 더 깊고 더욱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랐던 것이다 (Bettelheim, 1984/2001: 114).

프로이트는 자신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는 ‘암흑의 세계’를 회피하고서는 스스로를 ‘깊고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이해하려는 목적은 그 세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정도를 알아내고 그것을 승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승화야말로 ‘정신의 감춰진 측면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방법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고유성 혹은 독자성을 자각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강조한 정신분석은 꿈의 이면을 이루는 무의식의 승화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자기이해’로 귀결되는 셈이다. 물론 이 경우에 승화는 무의식을 이루는 욕동을 극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욕동은 결코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동이 가진 힘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다. 형편이 그러하다면 승화는 타협된 욕동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욕동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타협한 채 늘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에게서 확인되는 자기이해는 욕동과의 긴장을 가장 예리하게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다.<sup>3)</sup>

## 2. 꿈의 심리적 기제 : 욕동의 기제

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꿈에는 특정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고, 그 원인은 특정한 심리적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이트는 꿈의 심리적 원인을 무의식적 욕동에서 찾는다. 꿈에 관하여 언급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꿈의 내용이다. 밖으로 드러나는 꿈의 내용만 살펴본다면, 프로이트가 꿈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의식적 욕동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그 무의식적 욕동의 성격을 알아내는 일은

---

3) 우리에게 ‘발도르프 교육’으로 알려져 있는 루돌프 슈타이너는 자신의 저서 「자유의 철학」에서 인간은 마음 안의 충동이 아닌 인지적 관념을 따를 때 진정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teiner, 1916/2021: 190). 슈타이너는 ‘모든 세계 현상의 해명 원리들을 세계의 밖이 아닌 안에서 찾는’(p.193) 일원론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프로이트와 다르지 않지만, 그 세계의 원리를 욕동이 아닌 관념에서 찾고 있다(본문 Ⅲ장 2절 참조).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무의식적 욕동은 꿈의 내용적 요소 안에 함축되어있는 것이어서, 굳이 무의식적 욕동이 의식적 꿈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도 꿈의 내용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꿈의 심리적 기제-꿈이 형성되는 과정적 원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프로이트는 꿈의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한다(Freud, 1961/2020: 170). 꿈의 이면에서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꿈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가리켜 '잠재적 꿈-내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꿈의 내용의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그 잠재적 꿈-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현상을 가리킨다. 그것을 가리켜 프로이트는 '외현적 꿈-내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통상 자주 언급하는 꿈의 내용은 외현적 꿈-내용이지만, 프로이트가 꿈의 심리학적 의미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잠재적 꿈-내용이다. 잠재적 꿈-내용은 외현적 꿈-내용의 배후에 숨어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무의식적 욕동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인데도 프로이트는 그것을 가리켜 '사고'라 일컫는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꿈의 원인이 되는 무의식적 욕동은 식욕과 같이 단순히 신체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욕구이기보다는, 정신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이트에게 심리적 욕구는 정신의 작용-또는 영혼의 작용-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의 한 가지 작용이라고 간주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성욕은 그 심리적 욕구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sup>4)</sup> 무의식적 욕동을 사고라고 일컫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처럼 꿈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잠재적 사고가 본래의 내용 그대로 꿈에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면 상태에서 인간의 정신 활동은 깨어있을 때에 비하여 자신의 욕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벗어나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수면 상태에서의 정

---

4) 성욕이 식욕과 명확히 구분되는 심리적 욕구라는 점에 관해서는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글 참조.

신을 모든 의식적 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적어도 프로이트에 관한 한, 인간의 의식은 수면 상태에서조차도 자신의 깊은 욕동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인지 끊임없이 검열한다. (바로 이 점에서 프로이트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깨어있을 때는 그 정신이 때때로나마 진실을 포착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항상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한다(Aristoteles, Fragments, 55; Zemb, 1961/2004: 42, 재인용). 프로이트는 꿈에 관한 전통적 견해를 형성해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상이한 것이다.)

무의식적 욕동은 이러한 의식적 검열망의 권위에 맞서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정면 승부의 방법보다는 내용을 숨기거나 포장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한다. 이처럼 꿈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 사고가 수정되고 변형되어 외현적 꿈-내용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가리켜, 프로이트는 ‘꿈-왜곡 현상’이라고 부른다(Freud, 1953/2020: 186). 이러한 꿈-왜곡 현상을 두고 프로이트는 ‘정치평론가 비유’를 들며, 정치평론가와 권력자의 관계—더 정확히 말하여 정치평론가가 권력자의 정책에 관하여 비판을 하는 과정—에 비추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권력자에게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정치적 문인(文人)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 그가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권력자는 그의 발언을 억압할 것이다. 구두(口頭)에 의한 의사 표명이면 추후에, 인쇄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억압하려고 할 것이다. 문인은 검열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자신의 견해 표현을 완화하고 왜곡한다. 그는 검열의 강도와 민감성에 따라 공격의 일부 형식만을 제한하거나 직접적인 표현 대신 암시로 말하기도 한다. 아니면 불쾌한 이야기를 악의 없이 보이도록 위장하고 은폐해야 한다(Freud, 1953/2020: 193).

정치평론가는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



하여, 권력자는 정치평론가의 비판적 발언을 억압하는 경향을 띤다. 이처럼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정치평론가의 말은 일종의 무의식적 욕동에 비유된다. 이와는 달리, 들어야 할 진실인데도 듣기 싫어서 억압하는 권력자의 행위는 일종의 인간의 의식에 비유된다. 인간의 의식은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자신의 모든 심리적 활동을 검열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권력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권력자에게 무의식적 욕동은 자신의 까다로운 기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는 듣기 싫은 진실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무의식적 욕동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 힘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무의식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욕동을 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평론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검열이 두려운 정치평론가는 권력자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언을 완화하고 왜곡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바로 그 왜곡의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암시, 위장, 은폐이다. 앞서 꿈은 소원성취의 과정이라고 밝혀낸 바 있지만, 이러한 꿈-왜곡 현상을 고려한다면 꿈은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 과정'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다(Freud, 1953/2020: 214). 그리고 꿈을 왜곡한다는 것은 마치 정치평론가의 발언-무의식적 욕동-이 권력자의 검열-의식 수준의 억압-에 의하여 완화하거나 왜곡한 상태-무의식 수준의 암시, 위장, 은폐-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꿈이 형성되는 과정의 '두 가지 심리적 힘'을 언급하며 꿈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 있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무의식적 욕동이 왜곡된 채 의식적 꿈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심리적 힘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중 하나는 무의식적 욕동의 힘이며, 다른 한 가지는 그 무의식적 힘을 검열하는 의식적 힘이다. 무의식적 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반면, 의식적 힘은 그 무의식적 힘을 끊임없이 검열함으로써 무의식적 힘으로 하여금 자신을 암시, 위장, 은폐 등의 방법으로 왜곡하도록 강요한다. 이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식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견해

를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의식된다는 것은 표상 또는 개념의 형성 과정과 무관한 별개의 특이한 심리적 활동이다. 의식은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지각하는 감각 기관으로 나타난다. 정신병리학에서는 이런 근본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Freud, 1953/2020: 195).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이 작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심리적 힘의 줄다리기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무의식적 힘은 의식의 억압으로 인하여 암시, 위장, 은폐의 모습으로 자신을 왜곡한다. 그러나 이러한 꿈-왜곡 현상이 두 가지 심리적 힘의 줄다리기에 무의식적 힘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의식적 힘은 의식적 힘에 맞서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노력한 결과, 가장 안전한 방법-최소한 자신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이 활동하는 한, 이 두 가지 힘의 줄다리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 줄다리기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정신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다. 바로 그 고요한 전쟁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 외현적 꿈-내용이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이처럼 외현적 꿈-내용은 잠재적 사고가 위장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대체로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위장된 것의 내용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밖으로 드러난 꿈-외현적 꿈-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그에 반해 프로이트는 꿈-해석만큼이나 그 반대의 과정-꿈의 원인과 그 기제를 규명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꿈이 무의식적 욕동을 원인으로 하여 형성되는 그 과정을 가리켜 프로이트는 ‘꿈-작업’이라 부르고 있다(Freud, 1953/2020: 347). 잠재적 사고는 꿈-작업을 거치기 전의 무의식적 욕동이며, 외현적 꿈-내용은 꿈-작업을 거친 후의 무의식적 욕동이다. 잠재적 사고와 외현적 꿈-내용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적

욕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무의식적 욕동을 상이한 양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잠재적 사고는 무의식적 욕동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반면, 외현적 꿈-내용은 무의식적 욕동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요컨대 외현적 꿈-내용은 무의식적 욕동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된 상태로 자신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현적 꿈-내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꿈을 해석하는 일은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는 것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무의식적 욕동-온갖 상징으로 자신을 드러낸 무의식적 욕동-을 단서로 하여 왜곡되기 이전의 원래의 모습-자신을 끊임없이 의식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무의식적 욕동-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꿈-작업은 있는 그대로의 무의식적 욕동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상징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거니와, 이른바 ‘압축 작업’은 꿈-작업의 필수적 단계의 하나이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밝히고 있는 압축 작업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사고의 일부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잠재적 사고가 꿈으로 표출되는 데에는 잠재적 사고를 가공하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으며, 그 가공하는 과정의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가 바로 압축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압축 작업은 무의식의 잠재적 사고를 의식 수준에 떠올려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잠재적 사고를 의식에 맞게 조정·변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무의식을 이루는 잠재적 사고는 욕동의 덩어리이며, 그 욕동의 덩어리는 문명된 삶과 충돌 관계 또는 긴장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압축 작업은 욕동의 덩어리와 문명된 삶의 충돌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압축 작업의 과정에는 다시 여러 기제가 작용하는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이다. 먼저 ‘꿈-내용의 중복 결정’에 관여하는 압축 작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꿈-내용의 기반이 되는 잠재적 사고 중에서 꿈-내용으로 선택

된 잠재적 사고와 그렇지 못한 잠재적 사고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다시 말하여, ‘꿈-내용의 취사선택을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필수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꿈-내용과 잠재적 사고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꿈-내용의 취사선택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잠재적 사고와 꿈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특정 잠재적 사고가 반드시 하나의 상징으로만 표현되지 않을뿐더러, 꿈의 상징 또한 단 한 가지의 잠재적 사고가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꿈-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꿈을 구성하는 상징들은 다양한 잠재적 사고와 다면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꿈-요소가 다양한 잠재적 사고와 풍부한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가’가 꿈-내용의 취사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꿈의 특성을 두고, 프로이트는 ‘꿈이 잠재적 사고들에 의해 중복결정되는 것’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의원이 주민들 중에서 선출되듯이, 개별 꿈-사고[잠재적 사고]와 일련의 꿈-사고가 꿈-내용[꿈]에서 생략된 채 표현되고 그 다음에 꿈-사고가 또다시 꿈에서 생략된 채 표현되는 식으로 꿈은 형성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체 꿈-사고가 어떤 식으로든 가공된 다음,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요소들이 두드러지면서 꿈의 요소로 표현된다. 마치 후보자 명단에서 가장 많은 지지자를 뽑는 선거와 유사하다. 어떤 꿈이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꿈-요소들이 전체 꿈-사고에서 형성되며 각기 꿈-요소는 꿈-사고와 관련해 여러 번 결정되어 나타난다는 동일한 원칙을 매번 확인할 수 있다 (Freud, 1953/2020: 355).

위의 ‘대의원 선출’ 비유는 다양한 꿈-사고[잠재적 사고]가 꿈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강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비유에서 주민은 잠재적 사고를 비유하며, 선출된 대의원은 형성된 꿈을 비유한다. 대의원은 주민들 중에서 선출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의원 후보 중에서 대의원이 선출된다. 마찬가지로 잠재적 사고는 곧장 꿈으로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꿈으로 나타난다. 마치 주민들 중에서 대의원 후보들이 선출되듯이, 잠재적 사고는 가공단계를 거치며 꿈의 후보자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가공단계의 꿈은 아직 꿈-내용의 후보자일 뿐, 모든 요소가 꿈-내용에 표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내용의 취사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은 '잠재적 사고와 관련해 여러 번 결정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꿈-내용의 여러 후보자 중, 다양한 잠재적 사고와 많은 교차점을 가진 꿈-요소만이 꿈-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며 꿈은 잠재적 사고와 다면적 의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에 관여하는 압축 작업은 무정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잠재적 사고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정형의 잠재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 새로운 무정형의 잠재적 사고는 이전의 무정형의 잠재적 사고를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동일하게 잠재적 사고라고 보아야 하지만, 새롭게 형성된 잠재적 사고는 꿈으로 표출될 정도로 꿈을 꾸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것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잠재적 사고와 완전히 동일한 것일 수 없다. 예컨대 프로이트가 꿈에 등장하는 인물을 '집합 인물'과 '혼합 인물'로 제시하며, 꿈 속에 등장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 인물과 혼합 인물은 모두 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체의 성격을 띤 인물이다(Freud, 1953/2020: 365). 그러나 현실 속 인물들의 특성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경우가 차이를 보인다. 집합 인물은 현실 속 여러 인물들의 대리인으로서, 그 인물들의 모순되는 상충된 다양한 특징들까지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프로이트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꿈의 한 사례에서 'M박사'는 현실 속 M박사의 이름을 가지고 현실의 M박사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의 신체적 특징과 질병은 또 다른 인물의 특징에 해당한다. 이처럼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특징들이 하나의 꿈-형상으로 결합된 경우가 집합 인물이다. 이와는 달리, 혼합 인물은 현실 속 여러 인물들

의 특징들 중, 공통된 특성은 뚜렷하게 부각되고 공통되지 않은 특성은 희미하게 드리우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프로이트가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에서 유난히 강조된 ‘의사R의 금발의 수염’은 현실 속 서로 다른 두 인물의 공통된 특징에 해당한다. 혼합 인물의 경우, 한 사람의 고유의 특징을 다른 사람의 특징과 결합시키기 위해 각기 기억 형상에서 어떤 특징들을 생략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두 인물의 공통된 특징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현실 속 인물들의 특성을 집합 인물과 혼합 인물의 형태로 통합하는 세밀한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두 방식 모두 현실 속 여러 인물들과 다면적으로 맺는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꿈-내용으로 선택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과 더불어 사용되는 압축 작업의 주요 기제로는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이 있다. 잠재적 사고는 꿈-내용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공단계에서 가지치기를 계속하며 꿈으로 표출될 만한 잠재적 사고를 취사선택하거나-이른바 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 최초의 잠재적 사고를 대신하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거나-이른바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 최초의 잠재적 사고를 연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매개물을 만들어내는-이른바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등, 압축 작업의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 프로이트가 압축 작업의 또 다른 기제로 언급하고 있는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의 결과물은 일차적으로는 꿈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이상의 잠재적 사고들을 연결 짓는 매개체를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꿈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잠재적 사고와 그 결과에 해당하는 꿈-내용을 연결 짓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결국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 과정은 최초의 잠재적 사고와 꿈을 매개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셈이다. 이 매개체는 그 자체로는 꿈꾼 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요소가 다양한 잠재적 사고를 연상시키는 중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형성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욕동의 덩어리인 잠재적 사고는 그것

을 희미하게 연상시키는 매개물을 빌어 마침내 꿈으로 표현되는 셈이다. 꿈을 형성하는 압축 작업이 가지치기에 비유될 수 있다면, 그 가지치기는 꿈으로 표출될 만한 잠재적 사고를 끊임없이 취사선택하고 잠재적 사고 사이의 유사점을 이끌어내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를 관련짓는 일련의 가공 과정을 가리킨다.

프로이트가 그의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꿈의 사례-이르마 주사 꿈<sup>5)</sup>-를 살펴보면 이러한 중간 형성물이 가공되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꿈에서 프로이트의 두 친구-프로이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밀렌 냄새 나는 리큐류를 선물한 친구와 프로이트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며 화학을 비롯해 귀중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친구-가 대립하고 있다. 이때 ‘프로필렌’은 이 두 친구로부터 각각 연상될 수 있는 표상 무리의 교차점에 해당한다. ‘프로필렌’은 첫 번째 친구와 관련된 표상 무리에서 꿈-내용에 포함되도록 미리 결정되어있는 뚜렷한 요소인 ‘아밀렌’에서 어렵지 않게 연상될 수 있는 요소일뿐더러, 두 번째 친구와 관련된 표상 무리에서 연상될 수 있는 ‘프로필레엔’과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아밀렌’과 ‘프로필레엔’은 마치 타협에 의한 양, 두 표상 무리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프로필렌’이라는 중간 형성물을 내세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례에서 ‘프로필렌’은 일차적으로 꿈의 원인이 되는 두 잠재적 사고-아밀렌과 프로필레엔-를 매개하고, 이차적으로 꿈의 원인이 되는 두 잠재적 사고와 그 결과에 해당하는 꿈-내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언급한 압축 작업의 세 가지 기제-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는 꿈에 따라 임의로 선택되거나 무질서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가 분석한 다양한 꿈의 사례를 살펴보면, 압축 작업의 세 가지 기제는 일정한 계열을 따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잠재적 사고가 꿈-내용

---

5) 프로이트가 꿈의 분석 사례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르마 주사 꿈’은 프로이트 「꿈의 해석」 글 참조.

으로 가공되기 위하여 거치는 압축 작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선 꿈의 원천이 되는 최초의 잠재적 사고는 그 양이 매우 방대하여 취사선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압축 작업의 첫 번째 단계인 ‘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이다. 앞서 밝혀내었듯이, 이 단계에서 꿈-내용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기준은 ‘여러 잠재적 사고와 다양한 교차점[중복성]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를 거친 잠재적 사고는 이어서 본래의 모습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압축 작업의 두 번째 단계인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잠재적 사고의 공통점을 결합하거나, 그 공통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사고가 가공된다. 두 번째 단계를 거친 잠재적 사고는 비로소 최초의 잠재적 사고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통합체가 모두 다 꿈에 표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사선택의 과정-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과 1차 가공의 과정-새로운 통합체의 형성-을 거친 잠재적 사고라 할지라도 꿈에 표출되기에는 그 양이 여전히 방대하며, 의식적 검열망을 통과하기에도 완전히 위장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적 사고는 최초의 모습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그 잠재적 사고를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그 마지막 단계인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이다. 이 매개체에 해당하는 잠재적 사고는 원래의 잠재적 사고와 닮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래의 잠재적 사고와 동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중간자로서 또는 매개체로서 생성된 새로운 잠재적 사고는 원래의 잠재적 사고의, 비유컨대, ‘가지’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계열을 떠는 세 가지 기제-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를 차례대로 거치면서 잠재적 사고는 마침내 간결하고 상징적인 형태로 꿈에 표출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프로이트가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식물학 연구 논문에 관한 꿈’



을 살펴보면, 이러한 압축 작업의 세부 기제 간 계열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프로이트가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꿈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꿈에서 프로이트는 ‘어떤 식물종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집필하였고, 그 책은 그 앞에 놓여있으며, 프로이트는 원색 삽화를 뒤적거리는데, 그 책에는 말린 식물 표본이 하나 붙어 있다.’. ‘식물학’과 ‘연구 논문’은 꿈꾼이의 잠재적 사고 속의, 다양한 인물 혹은 그 인물들과 엮인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경험은 사상된 채 꿈에서는 오직 ‘식물학’과 ‘연구 논문’의 내용만이 현시된다. 이것은 다양한 잠재적 사고 중에서 꿈으로 표출될 만한 것을 취사선택한 결과, 프로이트의 용어로 말하여 ‘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식물학’과 ‘연구 논문’은 꿈에서 각각 유의미한 단일 표상으로 꿈에 등장하지 않고, ‘식물학 연구 논문’이라는 복합 표상으로 꿈에 등장한다. 이것은 압축 작업의 두 번째 세부 기제인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의 꿈에서 ‘식물학 연구 논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이기보다는 꿈의 원인이 되는 낮의 다양한 체험들을 매개하고, 나아가 그 체험들과 꿈-내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물학 연구 논문’이 매개하는 두 가지 잠재적 사고 중, 한 가지는 꿈의 제1출처로서 사소한 부수적 체험에 불과하며, 다른 한 가지는 꿈의 제2출처로서 높은 심리적 가치를 지니는 체험이다. 따라서 ‘식물학 연구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꿈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체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꿈의 원인이 되는 높은 심리적 가치를 지니는 체험과 꿈-내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잠재적 사고가 꿈으로 가공되는 압축 작업은 꿈꾼 이의 마음 혹은 욕동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잠재적 사고가 꿈으로 표출되는 과정은 꿈꾼 이의 욕동에 기반하여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체계적인 과정이

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꿈을 형성하는 기제에는 압축 작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프로이트는 그의 책에서 꿈을 형성하는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꿈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두 공장장은 ‘압축’과 ‘전위’이다. 앞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압축은 다양한 양상을 띠는 잠재적 사고를 취사선택하거나, 새로운 통합체를 형성하거나, 중간 요소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전위는 표상의 심리적 강도를 뒤바꾸는 것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잠재적 사고가 꿈속에서는 중요한 표상으로 표출되는 반면 중요한 잠재적 사고는 꿈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표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압축과 전이 외에 꿈을 형성하는 기제는 ‘상징’과 ‘이차가공’이다. 여기에서 ‘상징’은 꿈만의 고유한 기제는 아니다. ‘상징’은 태초에 인간에게 내재된 무의식적 표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테면 길쭉한 물건들은 남성을 상징하고 그릇이나 방이 여성을 상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물론 이때 심리적 재료 고유의 유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꿈을 형성하는 마지막 기제에 해당하는 이차가공은 마치 백일몽과 같이, 부분적으로 잠에서 깬 상태에서 의식적 검열 작업이 작동되면서 잠재적 사고가 의식의 영향을 받아 일부 수정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결국 꿈을 꾸게 되는 모든 과정—압축, 전위, 상징, 이차가공—은 잠재적 사고가 꿈에서 왜곡되는 세부 기제에 해당하며, 꿈을 통한 잠재적 사고의 왜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잠재적 사고는 꿈-내용으로나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잠재적 사고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작업은 일어나지 않고, 그 잠재적 사고가 꿈으로나마 표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변형시키는 작업만 행해지는 것이다. 꿈이 형성되는 기제는 매우 치밀한 과정이지만, 이 복잡한 세부 기제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잠재적 사고가 꿈꾼 이의 의식적 검열에 불편하지 않은 형태로 꿈속에 표출될 수 있도록 왜곡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더러 꾸는 꿈은 복잡한 심리적 기제의 산물이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꾸는 꿈의 현상을 여실하게 밝혀주고 있다. 가히 그의

꿈이론은 꿈의 신비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는 마음의 신비를 납득가능한 형태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프로이트의 꿈이론의 위대성과 매력이 있다.

### Ⅲ. 꿈이론의 재조명

프로이트의 꿈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꿈은 소원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핵심이며, 꿈은 특정 심리적 기제를 거치며 형성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핵심이다. 꿈을 생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던 기존의 견해와 비교할 때, 프로이트의 꿈이론은 꿈을 심리적 활동의 결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프로이트의 꿈이론은 꿈심리학의 서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꿈이론에 의하면, 꿈은 깨어있을 때의 의식만으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던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펼쳐는 장이며, 이 점에서 꿈은 의식의 지평을 넘어서 있는 마음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깨어있을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는 동안에만 꿈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이다. 프로이트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관심을 둔 것은, 이 무의식이야말로 본능에 따르는 세계로서, 이른바 마음의 세계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그 힘의 종류나 크기를 사소하게 여겼던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프로이트는 의식 이면에 가장된 무의식의 세계를 그의 꿈이론-또는 꿈심리학-으로 낱낱이 파헤치고자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곧 인간의 본능이며, 그 본능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이어나가는 삶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프로이트의 꿈이론은, 꿈은 단순히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 심리적 활동의 하나라는 점, 꿈은 깨어있을 때의 의식의 활동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꿈은 그것의 기저를 이루는 무의식으로 인하여 인간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여실하게 밝히고 있다. 인간 삶의 구체성과 역동성을 고려해볼 때, 프로이트의 꿈이론에서 확인되

는 이러한 핵심 특성 중에서 세 번째 특성-꿈은 그것의 기저를 이루는 무의식으로 인하여 인간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하여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의 꿈이론을 해석하는 관점이 학자마다 상이하다는 점은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프로이트의 꿈이론이 삶의 원동력을 인간의 무의식-본능의 힘-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 본능의 힘이 펼쳐지는 생명과 생기의 장이기 때문이다.

### 1. 꿈의 두 가지 원천 : 욕동과 본능

프로이트의 꿈이론에 의하면 꿈은 수면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이 활동하는 방식으로서, 깨어있을 때 차마 처리할 수 없었던 무의식적 소원을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통로이다. 프로이트에게 꿈은 그 의미-무의식적 소원 성취 과정-자체로도 심리학적으로 가치를 지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꿈이 형성되는 기제-무의식적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적 원리-역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해부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신체 기관과 달리, 마음의 작용은 결코 꺼내어 펼쳐 보일 수 없으므로, 마음의 작용을 납득 가능한 형태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에 해당하는 꿈은 심리학적으로 유효한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마음은 설 새 없이 꿈틀대는 욕동의 장이다. 여기에서 욕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렬한 욕동을 가리킨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욕동의 작용-마음의 동적 측면-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꿈틀대는 에너지로 가득할뿐더러, 아이들은 그것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욕동이 있는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어른들의 욕동의 작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

해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른의 경우, 의식적 검열 활동이 활발하여 욕동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어른들의 욕동의 작용이 어린 아이들의 그것에 작용에 비하여 덜 활발하거나 희미한 것은 아니다. 어른의 경우 역시, 삶의 에너지는 욕동의 형태로 표출된다. 의식적 검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어린 아이이건, 의식적 검열 활동이 활발한 어른이건, 모든 인간의 삶은 욕동을 분출하는 장인 것이다. 다만 욕동을 분출하는 것이 도덕적·사회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경우, 아이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동을 분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반면, 어른들은 자신의 욕동과 도덕적·사회적 기준을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때 꿈은 욕동을 그나마 제약 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에서 ‘욕동(drive, 독일어로는 treib)’은 얼른 그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과는 달리 단지 성충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분명 우리 마음은 설새 없이 꿈틀 대는 욕동의 장이며, 인간의 삶은 이러한 욕동을 사회적 기준에 타협하여 표출하는 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욕동을 곧장 성충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을 편협되게 파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욕동의 이러저러한 충동 중에서, 특히 성충동을 가리켜 ‘리비도’라는 학문적 용어를 사용한다. 리비도가 욕동의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다른 충동에 비하여 그것에 초점을 둔 이유는 그것이 욕동의 작용을 확인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선 프로이트가 인간의 욕동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그것이 인간 삶에서 확인되는 보편적 현상이며, 따라서 욕동을 구현하고 사는 삶의 모습은 각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프로이트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삶의 유형은 심리학적 유형이다. 그리고 그 심리학적 유형은 무엇보다도 리비도에 지배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개개인은 인간의 보편적 모습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한 존재다. 이런 다양성 속에서 개별 유형을 구별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특징에 따라 분류할 것인지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육체적 특성 역시 정신적 특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마 육체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의 균형 잡힌 통합을 보장하는 구분이 가장 중요할 듯하다(Freud, 1920/2020: 307).

특히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언급한 대목에서 ‘육체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의 균형잡힌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성충동은 개인의 육체적 특성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유형’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프로이트에 관한 한, 리비도는 육체와 정신이 균형을 이룬 삶을 짐작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균형 잡힌 유형들[육체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의 균형 잡힌 통합]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지는 사실 의문스럽다.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토대 뒤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것을 심리학적 유형으로만 국한한다면 분류의 토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리비도다. 그런데 이 분류는 리비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나 가설에서 나온 것이지만 경험적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되어야 하고, 또 관찰된 많은 것들을 우리 관점으로 해명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게다가 고백하자면, 리비도에 따른 이런 유형들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결코 유일한 가능성일 수는 없고, 다른 특성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일련의 다른 심리적 유형들도 얼마든지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Freud, 1920/2020: 307).

프로이트가 언급하였듯이, 리비도는 ‘경험적 현실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경험적 차원의 것이다. 여기에서 ‘경험적 차원’은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욕동의 작용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적 차원의 욕동-성충동-이 성인에게나 어린 아이에게나

확인된다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Freud, 1920/2020). 성인과 아이의 경험적 현상을 통하여 리비도가 우리 삶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다른 심리적 유형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교적 지각하기가 쉬운 리비도를 해석하는 과정을 발판으로 삼아 다른 충동 역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프로이트에게 욕동 이론은 그의 심리학 이론—이른바 정신분석심리학—의 처음과 끝을 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에 해당한다. 프로이트는 그의 욕동이론에 비추어 우리 삶의 다양한 양상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프로이트에게 욕동이론은 곧 삶의 이론인 셈이다.

정신분석학적 통찰에 의하면, 무의식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요, 또 힘없는 창백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꿈틀대는 역동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정신분석학의 그 무의식은 의식으로 분출되어 나오기 이전의 힘, 한 마디로 말하여 ‘생명’—보다 적절한 용어로는, ‘생기’(生氣)—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박종덕, 2017, 23).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의식으로 분출되어 나오기 이전의 힘’으로서, ‘끊임없이 꿈틀대며’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무엇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힘을 가리켜 프로이트는 ‘욕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프로이트에게 욕동은 삶의 근원이자 삶을 지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욕동을 삶 그 자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욕동이 삶의 근원적 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욕동은 곧 ‘생명’이요, ‘보다 적절한 용어로는 생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삶에는 그 욕동 혹은 생기를 제약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사로운 욕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사로운 욕동은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욕동 혹은 생기를 퇴색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삶이 무의식적 힘—이른바 욕동 혹은 생기—에서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라는 점은 달라질 수 없다. 요컨대



우리의 삶은 욕동 혹은 생기에서 추진력을 얻으면서 그와 동시에 의식의 사사로운 욕동에 의해 제약을 받는 그러한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의식의 존재를 니체 등의 이전의 철학적 견해에 힘입어 규명하였듯이, 어쩌면 정신분석학의 이 통찰도 프로이트나 융과 거의 동시대를 산 베르그송(1859-1941)이나 오르테가(1883-1955) 등의 철학적 견해-이름하여, '생명철학' 또는 '생기철학'-와 호흡을 같이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그들의 견해보다 더 대담한 것의 하나로,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그 생기는 다름 아닌 본능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리하여 정신분석학에 의하면, 심층의 마음은 본능으로 정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은 본능이 곧 심층의 마음이라는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세히 부연하고 있는 본능이론인 셈이다(박종덕, 2017, 23).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이루고 있는 그 생기'가 삶의 근원적 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다름 아닌 본능'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본능은 마음의 표층이 아닌 마음의 심층에 닿아있으므로, 본능을 곧 '심층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무의식의 힘에 해당하는 욕동과 심층의 마음에 해당하는 본능은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동과 본능은 심층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마음의 어떤 차원을 가리키고 있는가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가 삶의 원동력으로 밝히고 있는 무의식은 표층의 마음이 아니라 심층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심층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마음의 힘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활동의 추진력이 된다. 이 마음의 힘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적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이 바로 그 두 가지 차원이다. 경험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마음은 성욕, 식욕 등과 같이 지각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것이 곧 욕동이다.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마음은 욕동의 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본능이다.

맥두갈이 그의 본능심리학에서 시종 원용하고 있는 라슈달의 ‘미덕과 악덕의 원료’, 또는 ‘보다 높은 자아와 관련을 맺기 이전의 욕망 그 자체’는 바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본능-‘표현 이전의 에너지’을 가리킨다. 그것은 중층구조의 비유<sup>6)</sup>에서의 위층에 해당하며, 거기에는 출생 이후에 개체와 종족의 생존을 위한 욕망으로 표현될 것과 욕망 충족 활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표현 이전으로-함께 들어 있다(이홍우, 2018, 179).

맥두갈의 견해에 의하면 본능은 ‘표현 이전의 에너지’를 가리킨다. 이 때 ‘표현 이전의 에너지’는 ‘중층 구조의 비유’-마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 모형-에서 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현 이전의 표준’을 의미한다. 마음의 세계에서 아래층은 위층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음의 위층에 해당하는 ‘본능’에는 마음의 아래층에 해당하는 ‘표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의 위층-본능-은 아래층-표현-으로부터 전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첫째로, 본능은 경험적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의 두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야 한다.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욕동으로서의 본능이 경험적 차원의 본능-경험적 본능-이라는 점은 다소간 분명해 보인다. 이에 비하여, 융이 밝혀낸 영혼으로서의 본능은 그 성격이 불분명해 보인다. 융이 영혼을 ‘초경험적인 것’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형이상학적 본능-형이상학적 본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짐작을 하게 하지만, 초경험적인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여 반드시 형이상학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박종덕, 2017, 34).

---

6) 이홍우 교수는 자신의 글에서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모형으로서, 그 세계가 구분되는 아래층과 양자가 구분되지 않는 위층이라는 두 개의 층이 동일한 크기로 맞붙어 있는 형상으로 ‘중층구조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본능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이다.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언제든지 그것은 의식의 수준으로 떠올릴 수 있다. 이른바 ‘꿈의 분석’이 그 점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본능은 원칙상 지각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 본능을 ‘경험적 차원의 본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본능은 그 성격상 지각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각가능한 ‘경험적 차원의 본능’은 엄밀히 말하여 ‘욕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본능’이라고는 부를 수 없다. 위의 글에 제시된 ‘형이상학적 본능’은 프로이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형이상학적 본능은 경험적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서, 모든 욕동의 표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이상학적 본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욕동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되는 마음의 능력, 다시 말하여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능력이 곧 ‘형이상학적 본능’이기 때문이다.

욕동과 본능의 차이가 이러하다면, 프로이트가 밝혀낸 꿈의 원인은 욕동과 본능 중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적 소원의 성취 과정’이라고 본다. 다양한 꿈을 분석한 결과로,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적 소원’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지각하지 못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지각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점만 본다면 프로이트는 우리의 마음을 욕동에 국한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이트의 견해에는 꿈-인간의 무한한 정신적 활동-의 원인이 과연 욕동에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음의 작용에는 지각하기 수월한 경험적 차원의 마음도 있고, 지각하기 어렵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도 있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와 같은 것은 결코 눈으로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풍기는 호기로운이나 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한 사람이 풍기는 호기로운과 기상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사람들은 그 호기로운과 기상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능 역시 마찬가지다. 본능은 형이상학적 마음의 차원으로서, 욕동과 같이 경험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꿈틀대고 있고, 그 열망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곧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러한 본능을 짐작하는 데에 한 가지 단서가 된다. 아이들의 마음은 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열망이 향하는 대상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꿈틀대는 열망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아이들의 열망을 경험적으로 지각할 수는 없지만, 순수한 열망 덩어리 그 자체인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열망 혹은 본능은 ‘있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인생에서 어린 시절은 다른 시절과 비견될 수 없으며, 더구나 선호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은 아이들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신은 “자신의 완전무결함에 가장 가까운”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집착이나 악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이들이 분별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의 삶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Aries, 1965, 206)

성인기와 구분되는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 몇몇 학자들은 아동기를 ‘완전무결함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바라보았다. 아동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이들만이 지니고 있는 그 ‘완전무결함’은 지금까지 언급한 ‘순수한 열망 덩어리 그 자체’, 즉 ‘본능’과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내면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다른 요소들의 개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삶은 ‘분별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의 이치에 맞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다른 어느 시기의 마음에 비하여, ‘본능’ 그 자체에 가장 닿아있는 상태로서, 의식의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본능을 발현하는 상태이다.

의식이 개입이 덜하다는 점에서, 꿈은 아동의 마음과 닮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른의 마음은 의식이 철 새 없이 개입하는 상태이다. 어른의 마음이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수면 상태이고, 이러한 수면 상태에서 마음이 활동하는 방식이 곧 꿈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의 원동력이 ‘순수한 열망’ 그 자체이듯이, 꿈의 원동력 또한 의식의 개입이 최소화된 ‘완전무결한 소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깨어있을 때 성인의 삶은 아동의 삶과 다르게 ‘분별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의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아리에스의 말은 결코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 성인의 삶이 아동의 삶과 가장 유사해지는 순간—분별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삶의 이치에 맞는 순간—이 바로 수면 상태에서 꿈을 꿀 때의 내면의 상태이다.

아이의 마음과 유사하게 활동하는 마음의 방식이 꿈이라면, 이 꿈의 원천은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욕동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욕동의 표준에 해당하는 본능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운 힘이나, 꿈을 생성하는 마음의 힘은 결코 경험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관점을 따를 경우, 어린 아이의 삶을 이끄는 순수한 열망도 욕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어른에 비하여 그 삶의 동력이 덜 왜곡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 욕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프로이트의 이러한 견해를 더 예리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에릭슨(Erik H. Erikson)의 정신분석학이다. 특히 에릭슨의 「유년기와 사회(1986)」는 어린아이의 욕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 자료

로 손색이 없다. 그 책에서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 발달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Ch.7). 그 여덟 단계의 인간 발달은 각 단계별 적극적(positive) 특질과 소극적(negative) 특질이 대비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2)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3) 주도성 대 죄책감, 4) 근면성 대 열등감, 5) 정체성 대 역할 혼란, 6) 친밀 대 고립, 7) 생산력 대 침체, 8) 자아 완성 대 절망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의 ‘신뢰’는 갓 태어난 아이가 타인, 특히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면서 그와 동시에 스스로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가리킨다. 에릭슨은 이 ‘신뢰’에 들어있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타인인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특징-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 상충되는 측면은 어린아이의 첫 번째 단계인 ‘신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단서가 된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그 두 측면이 상충되지 않은 채 한 가지 특징으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은 그 신뢰가 어머니와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박종덕, 2015, 63). 어머니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그 어린아이에게는 외부 대상인 타인과 자기 자신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인 ‘자아 완성 대 절망’의 ‘자아 완성’은 스스로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삶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단계에서 자아의 완성은 자신의 삶의 완결성을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완성이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독립한 그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에릭슨이 언급하는 자아 완성은 자신의 삶의 책임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외부적 조건에 자연적으로 순응하는 ‘정서적 통합’이 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에릭슨의 견해에 의하면 ‘자아 완성’ 단계의 성인은 이전의 단계들-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

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성 대 역할 혼란, 친밀 대 고립, 생산력 대 침체-을 거치면서 타고난 본능을 주어진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며 산다.<sup>7)</sup>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회복된 타고난 본성이 곧 자신의 삶이자 자아의 완성인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에릭슨은 성인의 이러한 자아 완성과 유아의 신뢰 사이의 관계를 순환적 구조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순환적 구조’는 ‘인간의 삶을 본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출생 이전 어머니와 한 몸의 상태일 때 인간의 삶은 ‘낙원’이다. 하지만 출생 이후 어머니와의 분리를 겪으면서 인간의 삶은 ‘낙원’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박종덕, 2015, 63).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러 성인은 자신만의 생애를 구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낙원-어머니와의 한 몸일 때의 그 시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에릭슨이 설명하는 ‘순환적 구조’이다. 에릭슨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어머니와의 한 몸의 상태로 태어나 그와 동일한 상태인 자아 완성이로 점차적으로 발달해가는 ‘점생적 발달’(epigenetic development)의 원리로 설명된다(Erikson, 1986, 331). 에릭슨은 자아가 사회적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심리사회적 규범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점생적 발달’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에릭슨이 언급하고 있는 ‘점생적 발달’은 인간의 생애 주기상의 자아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규제하는 특징적 원리에 해당한다(정신실, 2015, 12). 앞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의 자아 발달을 여덟 단계로 나누며, 그 여덟 단계를 적극적 특질과 소극적 특질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에릭슨의 견해에 의하면 적극적 특질-신뢰,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 생산력, 자아 완성-은 자아가 그 단계에 맞게 발달한 상태를, 소극적 특질-불신, 수치심과 의심, 죄책감, 열등감, 역할 혼란, 고립, 침체, 절망-은 자아가

---

7) 공자의 이력서에 의하면 공자는 그의 생애 마지막 국면은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 라고 한다.

그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각 단계의 정적 특질과 부적 특질이 각 단계별 발달의 완전한 성공과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적 특질과 부적 특질의 대비는 완전과 불완전의 대비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완전과 불완전의 대비하에 자아의 특질이 점차 완전의 경지로 향해 가는 것이 곧 점생적 발달이라는 것이 에릭슨의 견해이다(p. 63). 예컨대 자아 발달의 여덟 단계 중 성숙기에 이르러 획득되는 ‘자아 완성’은 그것의 불완전한 형태인 ‘자아 절망’에 대비된다. 이 ‘자아 절망’은 ‘자아 완성’과 비교하여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 이전 단계의 특질에 해당하는 ‘생산력’보다 낮은 수준의 특질이라고 볼 수 없다. 자아 발달의 각 단계별 특질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의 특질은 이전의 특질에 다른 특질이 더해져서 나타난다는 것이 에릭슨의 견해이다(p. 30). 이러한 ‘점생적 발달 원리’에 따르면 ‘자아 완성’은 자아 발달 상의 모든 단계에서 희미하게나마 갖추어져 있는 셈이지만, 최종의 ‘자아 절망’의 극복을 통하여 확립된 ‘자아 완성’은 이전 단계의 그것보다는 보다 완전의 경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에릭슨의 이러한 견해-자아 발달은 점생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따르면, ‘자아 완성’ 단계의 성인의 본능과 갓 태어난 아이의 본능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와의 ‘한 몸’의 상태-주체와 객체가 미분리된 상태-의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낙원’이다. 그리고 ‘자아 완성’ 단계-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무의미한 상태-의 성인의 마음 또한 어떠한 외부 조건도 자기화하여 순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원’이다. 에릭슨에게 있어 완성된 삶은 자아발달상의 최초 단계의 덕목-‘신뢰’-을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완성하고 표출해내는 삶-‘자아 완성’-인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에릭슨은 자아 발달 상의 최초 단계의 덕목은 자아 발달의 마지막 단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할 뿐, 자아 발달의 모든 단계에 그 낙원의 경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



에릭슨은 본성을 상실하는 과정과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두 가지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삶의 과정을 미완의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가는 계열, 더 간단히 말하여 ‘미완과 완성의 계열’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완전한 삶은 미완의 삶과 별도로 사전에 주어져 있는 것이요 또 언젠가 ‘철학’과 ‘종교’라는 특별한 계기에 의하여 도달이 가능한 일종의 ‘목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요 또 언젠가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은 더욱이 불가능하다. 완전한 삶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박종덕, 2015, 65).

에릭슨은 갓 태어난 아이의 본능과 노년기 성인의 본능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간의 삶을 본능으로 회귀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에릭슨의 ‘순환적 관점’에 의하면, 본능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완전한 삶’이며, 그 ‘완전한 삶’은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릭슨의 견해는 ‘완전한 삶과 미완의 삶을 분리’하고 ‘본성을 상실하는 과정과 회복하는 과정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본능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능은 형체가 없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꿈의 원천으로서의 본능은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삶의 어느 지점에서나 갖추어져 있는 마음 그 자체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의 원천이 되는 인간의 마음을 경험이 가능한 ‘욕동’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에릭슨은 그 마음을 도달이 가능한 ‘목표’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험으로 지각될 수 없는 마음을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점과, 목표가 될 수 없는 마음을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설명한 점에서, 에릭슨의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행동의 원천으로서의 본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

간의 삶의 한평생이 본능과 맺는 관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러한 본능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그것을 부연한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은 삶의 동력에 관해서 그들 나름의 설명을 내어놓고 있으나, 그 동력이 형이상학적 수준의 본능이라함, 그리고 그러한 본능 회복의 삶이 무엇에 의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 2. 꿈 심리학의 한계와 가능성

앞장의 논의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듯이 프로이트의 꿈 심리학은 꿈의 원인과 꿈 형성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 논문 또한 프로이트의 논리에 비추어 꿈의 원인과 그 심리적 기제를 앞장에서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프로이트의 문제 의식에 그다지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프로이트는 꿈의 원인을 욕동에서 찾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삶의 일반적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현상을 빚어내는 원인으로서 욕동을 규명한 셈이다.

프로이트의 꿈 심리학은 가히 욕동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꿈 심리학은 욕동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욕동의 개념이 우리 삶, 특히 교육적 전달 사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학적 시사점을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공헌 또한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프로이트의 욕동이론은 꿈이라는 일반적 현상을 단서로 삼아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 욕동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조명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문명 속의 불만」에서 종교를 분석하거나 「쾌락원리 너머」에서 삶에 작용하고 있는 쾌락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정한 삶'에 대하여 고

민하는 시기를 맞이하기 마련이다. 삶이 생기로 가득한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러한 아이들조차 성장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면 ‘진정한 삶’에 대한 고민을 떠안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질문인 만큼 그 대답 역시 하나로 귀결되기는 어렵고, 또 하나의 대답으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답은 시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은 그 질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프로이트는 ‘진정한 삶’에 대한 해답을 ‘욕동’에서 찾고자 하였다. 프로이트에게 욕동은 꿈의 원천이자 모든 행동의 원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프로이트는 이러한 욕동을 경험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강력한 에너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끓는 마음, 그 마음은 때때로 식욕, 성욕 등의 사사로운 욕동으로 표출된다. 어린아이들은 애쓰지 않아도 이러한 욕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의식의 검열이 까다로워져 부분적으로나마 욕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진정한 삶’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동’을 분출하며 사는 삶인 것이다.

욕동의 삶이 곧 진정한 삶이라는 프로이트의 견해는 마음의 구조에 관한 그의 견해에 의해서 보다 명확히 뒷받침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을 ‘구조’의 측면에서 ‘자아, 초자아, 이드’ 세 요소로 설명한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에 의하면, 정신은 ‘자아, 초자아, 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대행자의 갈등과 조화로 설명된다. 여기에서 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따르고, 초자아는 현실 원칙을 따르는 대행자이다. 흔히 초자아는 쾌락과는 동떨어진, 그리하여 욕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초자아는 쾌락 원칙을 벗어나 있거나 정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욕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초자아는 쾌락 원칙에 영향을

받지만, 현실 원칙을 따르는 ‘타협된 욕동’인 것이다.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욕동을 분출하는 삶’은 욕동이 ‘승화’된 형태로 그 힘의 양을 총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지대를 찾아 쾌락 원칙을 실현하는 삶이다(박종덕, 2017, 26).

동일한 질문—진정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에릭슨은 그 해답을 ‘자아 완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에릭슨의 견해에 의하면 성인기에 이르러 획득될 수 있는 자아 특질인 ‘자아 완성’은 출생 이전 어머니와 한 몸의 상태일 때 아이가 지니고 있는 자아 특질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에릭슨은 인간의 자아가 ‘점생적 발달’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에릭슨은 삶의 원동력을 ‘욕동’에서 찾으려고 한 프로이트의 견해에 덧붙여, 성인의 욕동과 아이의 욕동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욕동의 발달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점생적 발달’에 관한 에릭슨의 설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에릭슨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여덟 단계를 거치며 자아를 완성해나가며, 각 단계에서는 정적 특질과 부적 특질이 완전과 불완전의 형태로 대비되어 있다. 이때 후 단계의 정적 특질과 부적 특질은 모두 전 단계의 특질들에 비하여 자아 완성에 가까운 형태이며, 각 단계의 정적 특질은 부적 특질에 비하여 자아 완성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종 단계의 정적 특질인 ‘자아 완성’은 이전 단계의 정적 특질이 모두 통합된 상태로서, ‘자아 완성에 가장 가까운 것’에 해당한다. 에릭슨의 ‘순환적 구조’에 의하면, 이 최종 단계의 ‘자아 완성’은 가장 첫 단계의 ‘신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에게 있어 ‘진정한 삶’은 갓 태어난 아이의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인 것이다.

진정한 삶의 모습을 경험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욕동’에서 찾으려 한 프로이트의 견해와, 본래부터 타고난 ‘자아 완성’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찾으려 한 에릭슨의 견해는 그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삶을 욕동의 표출로 본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점

에서 두 견해 모두 삶의 원천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와 에릭슨 모두 삶의 원천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 원천을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려 했다는 점이 그 한계이다. 앞서 밝혀내었듯이, 마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경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마음이 그 첫 번째 차원-욕동-이며, 경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저러한 욕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 두 번째 차원-본능-이다. 프로이트와 에릭슨은 삶의 원천을 마음의 경험적 차원-욕동-에만 국한하여 찾음으로써 그것의 표준이 되는 마음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마음은 이러저러한 욕동으로부터 추론되는, '있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뚜렷한 실체가 없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마음의 차원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천, 나아가 삶의 원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에너지나 널리 존경받는 어른들로부터 느껴지는 감화력의 경우, 그 실체를 뚜렷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프로이트나 에릭슨이 밝혀낸 '욕동'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본능-인 것이다.

아이의 정신이란, 어린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 몰두하듯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변화의 단계인 아이 정신은 자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모습이다. 니체는 이런 아이 정신의 특징을 '순진무구함', '망각',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 이렇게 일곱 가지로 표현했다. 정신은 아이가 되어야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놀이에 집중하는 순진한 아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창조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울며 떼쓰다가도 곧 잊어버리고 다시 즐겁게 놀이에 뛰어든다. 천진난만한 아이

의 웃음 티 없이 맑고 순진무구하다(장재형, 2022, 89).

어린 아이가 ‘놀이에 흠뻑 빠져 몰두하는 정신’은 경험적으로 지각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놀이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이들 마음 안에 솟아오르는 꿈틀거리는 열망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꿈틀거리는 열망이 바로 본능-혹은 본성-인 것이다.

삶의 과정이 그 자체로 본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본성은 형태를 띤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형체도 없는 마음 안이기 때문이다. 본성은 ‘없는 것’(無) 또는 ‘비어있는 것’(否定)을 특징으로 한다. ‘없는 것’인 만큼 본성은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어있는 것’인 만큼 본성은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성이 마음인 한, 그리고 누구나 마음의 결을 갖추고 살 수밖에 없는 한, 우리는 본성을 조금씩 표현하며 회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본성의 회복에 관한 한, 우리의 삶의 과정은 ‘미완과 완성의 계열’이 아니라, 미완의 삶이 연속하여 이어지는 ‘미완과 미완의 계열’인 셈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완성을 기약하며 본성을 회복하는 여정에 서 있을 뿐이다. 본성은 조금씩 가까이 가는 이정표일지언정 도달이 가능한 목표는 될 수 없다(박종덕, 2015, 66).

인간의 삶의 원천이 ‘본성’이며, 그에 따른 삶의 목표가 ‘본성의 회복’이라면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이거니와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본성의 실체를 뚜렷하게 밝히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본성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아무런 형체도 없는 마음 안’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실체이기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 또한 될 수 없다. 그러나

‘본성이 마음인 한’,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누구나 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성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본성의 회복에 관한 한’, 우리의 삶의 과정은 ‘본성의 회복’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본성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性)이 ‘자연’의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 영어 단어 ‘nature’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 본성은 본능(instinct)과 섞바꾸어 사용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본능이 의식 이전의 마음이 가지는 역동성을 잘 드러낸다면, 본성은 마음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관련하여 선악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성에 관한 이해에는 그 자체의 역동성이 잠재적인 형태로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본능에 관한 이해에는 마음의 바탕에 대한 논리적 가정이 들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광민, 2022, 2).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능의 개념은 그 성격상 본성과 다르지 않다. 본능은 본성이 타고난 것이듯이 타고난 본래의 것으로서, 타고난 본래의 능력을 가리킨다. 본능은 본성을 그 힘의 측면에서 달리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본성과 본능의 차이를 말하자면 ‘아무런 형체도 없는 마음’을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다. ‘아무런 형체도 없는 마음’을 정태적 측면에서 드러낸 것이 본성이라면, 그것을 동태적 측면에서 밝혀주는 것이 본능이다. 본능은 본성을 힘의 측면에서 지칭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측면을 가리키는가 보다, 그러한 힘-인간의 마음의 원천이 되는 힘, 정확히는 본능-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인간의 삶의 원천이 그 본능이고, 이것이 프로이트와 에릭슨이 밝혀낸 욕동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이라면, 이제 남

은 질문은 ‘본능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특정 시기에 이르러 본능을 회복한다기보다는 전 시기에 걸쳐서 그 시기에 맞게 조금씩 본능을 회복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모든 활동이 동일한 정도로 본능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본능의 회복과 비교적 근접하게 닿아있는 ‘특별한 활동’이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와 교육이 그 ‘특별한 활동’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종교는 형체 이전의 표준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경전과 의례에 의존하여 바로 그 형체 이전의 표준을 획득하는 인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종교는 인간의 활동으로서 특별한 것이다. 종교는 형체 이전의 표준을 획득하는, 비유컨대,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종덕, 2017, 39).

종교가 본능을 회복하게 하는 활동인 것은 그 매체인 ‘경전과 의례’에 의해서이다. ‘경전과 의례’는 본능-형체 이전의 표준-은 결코 아니지만, 본능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매체에 해당한다. 인간의 다른 활동에 비하여 종교가 ‘특별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는 다른 활동과는 달리 종교는 그러한 매체를 통하여 ‘경험 이전의 본능’을 회복하는 유리한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의 경우, 본능의 회복에 닿는 매체가 ‘경전과 의례’이고, 이 매체는 형체 이전의 표준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종교는 본능에 통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른 활동, 그 중에서도 교육은 이와 같은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교육이 지식을 가르쳐 전달하는 개념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개념은 분석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며, 이 점에서 개념은 경전과 의례에 비하여 형체 이전의 표준과 그 거리가 먼 것, 형체 이전의 표준을 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로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학



교과과가 무기력한 정보의 덩어리로 될 법도 한 것이다. 이런 형편이라면, 개념을 매체로 하여 형체 이전의 표준을 획득하는 일은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순전히 고통만 수반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복을 안겨준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다. 형체 이전의 표준을 획득하는 매체로서의 개념의 한계는 행복어린 고통인 셈이다. 종교와 관련하여 볼 때, 지식을 배워 형체 이전의 표준을 획득해 가는 일은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직통 전화’는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그 지식에 의해서는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그를 사모하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박종덕, 2017, 40).

종교가 본능의 회복에 닿는 매체가 ‘경전과 의례’라면, 교육이 본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는 ‘개념’이다. ‘개념’은 ‘경전과 의례’에 비하여 분석적 사고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체 이전의 표준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체 이전의 표준을 덜 표현하는 것’을 매체로 하여 ‘형체 이전의 표준’에 닿으려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본능에 통하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교육이 본능을 표현하는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개념이 본능 그 자체가 될 수는 결코 없지만 본능의 흔적—더 정확히 말하여 본능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본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충분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프로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욕동'이며, 그 '욕동'을 원인으로 하여 나타나는 인간 삶의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꿈'이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서 꿈을 연구한 것은, '꿈'을 통하여 '욕동'을 발견하고, 이러한 욕동의 발견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 이해'에 이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견해는 꿈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다시 말하여 생리학적 관점에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던 것과는 다르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프로이트는 인간 삶의 다양한 현상 중에 꿈만이 가지는 고유한 측면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밝혀내려 한 것이다. 꿈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은 욕동과 무관하지 않고, 그 욕동을 이해하는 일이 인간의 자기이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파악한다.

앞서 밝혀낸 바와 같이 프로이트는 이전의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했던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꿈은 생리적 자극이 정신 기관에 만들어 낸 환상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생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꿈의 원인과 내용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꿈 내용이 지니는 비밀관성으로 인하여 꿈이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면 상태에서의 정신 활동은 기껏해야 재현 능력, 기억력에 불과할 뿐, 개념적 사고나 의식의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깨어있을 때의 정신 활동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정신 활동이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반하여, 꿈이 심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꿈의 원인이 되는 자극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신체 감각, 심리적 경험, 잠재 기억 등 다양하지만 이러한 재료를 바탕으로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른 의식적 활동과는 구분되는 심리적 특수성을 지닌다(河合準雄, 2009/2003, 155). 수면 상태에서의 정신 활동이 깨어있을 때의 정신 활동에 비하여 가지는 특이성은 의식적 판단 등의 정상적 사고 작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판단 및 사고 작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 상태에서는 어떤 기준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무한한 정신 활동이 가능하다. 의식적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는 통로로서의 꿈의 가치를 매기지 못한다고 판단한 생리학자들과 달리, 프로이트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꿈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한다. 적어도 프로이트가 보기에 꿈이 수면 상태에서 심상-마음 안의 상징-으로 떠올려지는 것이라고 하여 꿈을 단지 의식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은 꿈의 생성 기제를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다.

꿈이 심리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만큼, 꿈이 형성되는 과정 역시 이전의 생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무작위로 만들어진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꿈에는 특정한 원인이 작용하며, 그 원인은 특정한 심리적 기제에 의하여 꿈을 생성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이다. 프로이트가 꿈의 심리학에서 여실하게 밝히고 있듯이 꿈을 생성하는 그 특정한 원인은 ‘무의식적 욕망’-더 정확히 말하여 욕동-이다. 그리고 무의식적 욕동이 꿈을 생성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심리적 세력의 견제와 균형이 작용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동이 그 하나이며, 이러한 무의식적 욕동을 검열하고자 하는 ‘자아의 대행자’가 다른 하나의 세력이다(프로이트는 욕동 그 자체를 가리켜 이드라고 부르며, 자아를 대신하여 그 욕동을 검열하는 세력을 가리켜 초자아라고 부른다.). 꿈은 이 두 가지 세력-이드와 초자아-의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이 우리 의식 속에 남긴 흔적인 것이다.

우리가 수면 상태에서 경험하는 꿈을 단순히 ‘흔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꿈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방대하고 다면

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적 욕동을 원인으로 하여 특정한 심리적 기제를 거치며 꿈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켜 ‘꿈-작업’이라 일컫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꿈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무의식적 욕동을 밝혀내는 과정을 가리켜 ‘꿈-해석’이라 일컫는다. 잠재적 꿈-내용이 외현적 꿈-내용으로 변형되는 과정인 꿈-작업은 프로이트의 용어로 말하여 ‘왜곡’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 욕동을 있는 그대로 꿈-내용으로 드러내는 일은 의식 수준에서 불가하며, 따라서 잠재적 사고는 자신을 그나마 표출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하고 변형하는 왜곡의 과정-‘암시, 위장, 은폐’ 등의 기제를 거처야만 꿈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질적인 측면에서도 잠재적 사고가 외현적 꿈-내용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 세부 기제를 거처야만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압축’ 과정이다. 압축 작업은 다시 여러 세부 기제를 거치는데, 그 대표적인 기제가 ‘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 선택,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이다. 이 세 가지 기제는 무작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열을 따르고 있음을 프로이트는 꿈의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있다. 잠재적 사고가 꿈-내용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잠재적 사고와 풍부한 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꿈-요소를 선택하고(꿈-내용의 중복 요소를 가려내는 것), 잠재적 사고를 대신하는 새로운 무정형의 잠재적 사고를 만들어 내고(그 중복 요소를 통합하는 것), 최초의 잠재적 사고와 꿈을 매개하는 것을 만드는 과정(그 통합된 요소와 잠재적 사고의 매개물을 형성하는 것)을 차례대로 거처야 한다.

꿈이 생성되는 왜곡-암시, 위장, 은폐 등-과 압축-꿈-내용의 중복 요소 취사 선택,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 중간 공통되는 것의 생성-은 이처럼 매우 치밀하고 복잡하지만, 그 다양한 기제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잠재적 사고-욕동-를 의식수준에서 거슬리지 않는 형태로-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로-꿈속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꿈은 깨어

있을 때 차마 의식으로 표출될 수 없었던 무의식적 소원 성취의 과정이다. 꿈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내용을 변형하는 과정이 왜곡의 과정이며, 그 왜곡된 꿈의 내용을 일정한 계열에 따라 구성하는 과정이 압축의 기제이다.

프로이트에게 꿈이 심리학적으로 유효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납득 가능한 형태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꿈이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의 작용이란 무의식의 작용을 의미하며, 무의식의 작용은 욕동을 따르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처럼 프로이트가 인간의 욕동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것이 인간 삶에서 확인되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그의 ‘꿈-심리학’은 꿈이 인간의 꿈틀거리는 욕동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충분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프로이트에게 마음은 쉴 새 없이 꿈틀대는 욕동의 장이다. 프로이트가 관심을 두고 있는 욕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렬한 욕동으로서, 마음의 동적 측면을 가리킨다. 그런데 때로 이러한 욕동은 그것이 심층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능과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욕동과 본능은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마음의 작용의 어떤 차원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욕동은 마음의 경험적 차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각이 가능한 것인 반면에, 본능은 마음의 형이상학적 차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욕동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때로 프로이트의 욕동은 ‘본능’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욕동과 본능의 엄연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그 욕동이 본능으로 간주되는 것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욕동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능력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의식적 수준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적 수준의 욕동은 언제든지 의식

의 수준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이 무의식적 수준의 것이지만 언제든지 의식의 수준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욕동은 경험적 차원의 것일 수밖에 없으며, 이 점에서 형이상학적 차원의 본능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애당초 본능은 프로이트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셈이다.

물론 프로이트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형이상학적 본능은 어떤 사람의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와 별도로 있을 수 없다. 형이상학적 본능은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와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이상학적 본능은 그러한 기개나 마음씨가 있다는 사실에서 논리적으로 가정되는 특정한 마음의 능력을 가리킨다. 아이들이 지닌 순수한 열망의 덩어리는 이러한 본능을 짐작하기에 유용한 단서가 된다. 어린 학생들은 심리적 특성상 ‘순수한 호기심’과 ‘순진무구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다(박종덕, 2015, 60). 아이들의 순진무구성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사로운 욕동의 개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식의 개입이 있기 ‘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sup>8)</sup>. 아이들 역시 소원 성취의 꿈을 꾸기는 하지만, 그 꿈은 어른의 꿈처럼 왜곡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낮동안의 소원이 꿈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향을 띤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욕동의 개입이 거의 없거나 의식의 개입이 있기 ‘이전’의 형이상학적 차원의 마음-본능-을 경험적 차원의 마음-욕동-으로만 해석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하여,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은 이것을 더 예리하게 밝힌 바 있다. 인간의 삶은 어머니와의 한 몸의 상태에서 태어나 그와 동일한 상태인 자아 완성으로 점차적으로 발달해가는 ‘점생적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 에릭슨의 견해이다. 그러나 에릭슨은 자아 발달 상의 최초 단계의 덕목은 자아 발달의 마지막 단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할 뿐, 자아 발달의 모든 단계에 그 낙원의 경지-어머니와 한 몸인 상태-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지각될

---

8) 하위징아에 의하면 어린 아이의 이 순진무구성은 놀이의 성격에 그대로 부합한다(Huizinga, 1955, 206).

수 없는 마음을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목표가 될 수 없는 마음을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설명한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은 모두 행동의 원천으로서의 본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능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러한 본능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본능의 회복과 비교적 근접하게 닿아있는 활동은 종교와 교육이다. 종교의 경우, 본능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경전과 의례이며, 교육의 경우 그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개념이다. 경전과 의례는 본능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능의 회복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반면, 개념은 경전과 의례에 비하여 형이상학적 표준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개념 또한 본능의 흔적 혹은 본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본능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음의 역동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본능의 성격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 본능 회복의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프로이트의 욕동 개념은 형이상학적 본능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본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볼 수 있다.<sup>9)10)</sup>

---

9) 본능을 회복하는 매체로서의 종교와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는 본능에 닿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고 교육은 간접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매체로서의 종교와 교육의 이러한 차이는 매클루한의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핫미디어와 쿨미디어가 지니는 차이점과 유사한 점이 있다. 매클루한에 의하면, 핫미디어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또는 풍부하게 제공하는 매체이며, 그런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의 노력을 덜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하여 쿨 미디어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의 노력을 많이 요구한다. 핫미디어보다 쿨미디어가 주체의 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매체를 내면화하는 일은 그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McLuhan, 1964, 58).

10) 프로이트의 삶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슈테판 츠바이크는 프로이트가 이성의 원리와 충동의 원리 사이에서 늘 번민하였다는 점을, 프로이트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지성이 우리의 충동과 비교해볼 때 힘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 허약함에는 어떤 특별한 요소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의 탐구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밝혀내었듯이 꿈은 욕동의 표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견해에 의하면 꿈은 무의식적 소원의 성취과정이며, 결국은 그 꿈의 내용은 의식 수준에서 지각된다는 점에서 꿈의 이론과 지각 이론은 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꿈은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지각에 초경험적 지각과 경험적 지각이 있듯이, 꿈에도 초경험적 지각과 경험적 지각이 확인된다. 신의 계시를 내용으로 하는 꿈은 초경험적 지각으로 확인된다.<sup>11)</sup> 소원 성취를 내용으로 하는 꿈은 경험적 지각으로 확인된다. 프로이트는 꿈이 초경험적 지각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꿈이 경험적 지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그는 꿈을 경험적 지각이라고 하여 소원 성취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꿈은 욕동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프로이트는 초경험적 지각에서 시사되는 꿈의 종교적 성격을 세속적 욕동으로 둔갑시킨 셈이다.<sup>12)</sup> 요컨대 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꿈을 지각이론의 관점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꿈의 이론은 곧 지각이론인 셈이다.

---

가 있다. 지성의 목소리는 낮지만 청취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는다. 수없이 여러 번이나 거듭 거절당하고 난 다음 마침내 그것을 얻는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몇 안 되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 요소는 그러나 제대로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니다. 지성이 우위에 설 날은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지는 않다.’(Stefan Zweig, 1930/2000, 409)

- 11) 진정한 꿈은 형상이 이성적 생기에 의해서 지각되어 생기는 것이지만, ‘혼란된’ 꿈은 기억력 속에 보존된 형상들, 즉 개인이 깨어있는 동안 상상이 보존해두었던 형상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진정한 꿈은 그것이 진실임을 보여주고 건전함을 입증하는 징표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꿈을 꾸 사람은 자신이 잠든 동안 신이 보내준 기쁜 소식을 의식하게 된다(Ibn Khaldun, 1377/2003, 440).
- 12) 프로이트는 도덕적 진리는 인간적인 원인으로 생겨났으며 이 진리를 신 덕분에 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Armand M. Nichili, Jr, 2002/2004, 99).



<참고문헌>

- 김광민(2022). 인간 본성과 교육: 마리땡과 정호(程顯). **도덕교육연구** 34(2). 1-21
- 박수빈(2015). 심리적 애착의 원형으로서의 태교.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종덕(2007). 인성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 초등교사의 역할에 주는 시사. **초등교육연구** 20(3). 107-127
- 박종덕(2015). 본성과 교육: 심리학적 관점과 성리학적 관점. **도덕교육연구** 27(1). 47-68
- 박종덕(2016). 영혼심리학 서설: 융의 분석심리학의 한 해석. **도덕교육연구** 28(2). 23-48.
- 박종덕(2017). 본능은 종교와 양립가능한가. **도덕교육연구** 29(4). 21-46.
- 이흥우(2017). 신수 교육과정이론. 교육과학사. 221-244.
- 이흥우(2018). 본능과 신 : 메타프락시스적 관점. **도덕교육연구** 30(1). 165-195.
- 윤영돈(2021).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의 소통을 통한 자기실현에 이르는 꿈 분석. **교양교육연구** 15(2). 189-200.
- 장재형(2022). **마흔에 읽는 니체**. 유노북스.
- 정도연(2012).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 정신실(2015).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개념의 재조명.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주(2020). 융의 분석심리학의 교육학적 해석. 박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 河合準雄(2003). **ユング心理學入門**. Tokyo: Iwanami Shoten. 김지윤 (역)(2009). **카를 융 인간의 이해**. 바다출판사.

- Armand M. Nicholi. Jr.(2002). *The Question of God*. Free Press.  
 홍승기(역)(2004). **루이스vs프로이트**. 흥성사.
- Bettelheim, B.(1984). *Freud and Man's Soul*. New York: Vintage Books. 김종주·김아영(역)(2001). **프로이트와 인간의 영혼**. 하나의학사.
- Erikson, Erik H.(1986). *Childhood and Society*. paper back. N.Y.: W. W. Norton. 송제훈(역)(2014).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 Freud, S.(1920). *Beyond the Pleasure*. The Hogarth Press. 김인순(역)(2013). **쾌락원리 너머**. 부북스.
- Freud, S.(1920). *Three Essays of on the Theory of Sexuality. Complete Works 7*. trans. by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orig. 1905. 박종대(역)(2020).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 Freud, S.(1953).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Complete Works 5*. trans. by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orig. 1900. 김인순(역)(2020). **꿈의 해석**. 열린책들.
- Freud, S.(1930).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Complete Works 21. by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orig. 1905. 김석희(역)(2003). **문명속의 불만**. 열린 책들.
- Freud, S.(1960).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Complete Works 22*. trans. by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182. orig. 1933. 김숙진(역)(2006).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문예출판사.
- Freud, S.(1961).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Complete Works 15*. trans. by James Strachey. London:

- The Hogarth Press. orig. 1916. 임흥빈·홍혜경(역)(2020).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 Fromm, E.(1980). *The Heart of Man*. New York: Harper & Row.
- Fromm, E.(1980). *Greatness & Limitation of Freud's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오태환(역)(2016). **프로이트 심리학 비판**. 선영사.
- Huizinga, J.(1955). *Homo Ludens*. Boston: The Beacon Press.
- Jung, Carl G.(1966). *Psychology and Religion. Collected Works 11*. trans. by R. F. C. Hull. Princeton University Press. 3-105. orig. 1940.
- Marshall MacLuhan(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by Marshall MacLuhan*. MIT Press. 김상호(역)(2011).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비평판)**. 커뮤니케이션북스. 58-80.
- McDougall, W.(1935). *An Intorduction to Social Psychology* (23rd Ed.). London: Methuen.
- Nigel Warburton(2011). *A Little History of Philosophy by Nigel Warburton*. Yale University Press. 정미화(역)(2021). **철학의 역사: 소크라테스부터 피터 싱어까지**. 소소의 책.
- Phillippe Aries(1965). *Centuries of Childhood*. Random House USA Inc. 문지영(역)(2003). **아동의 탄생**. 새물결.
- Stefan Zweig(1930). *Die Heilung durch den geist*. Hofenberg. 안인희(역)(2000). **정신의 탐험가들**. 푸른숲.
- Stein, M.(1998). *Jung's Map of the Soul*. Chicago: Open Court.
- Steiner, R.(1916). *The Philosophy of Spiritual Activity*. G. P. Putnam's Sons. 박규현·황윤영(역)(2021). **자유의 철학**. 수신제.
- Zemb, J.M.(1961). *Aristoteles*. Rowohlt. 김임구(역)(2004). **학문의 정신 아리스토텔레스**. 한길사.

## ABSTRACT

### The Theory of Drive in Freud's Dream Psychology : Educational Reassessment

Kim, Ye-Rin

Major in Counsell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Ulsan University

Major Advisor : Park, Jong-Du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Freud's dream psychology by reexamining the theory of drive in its psychology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Generally, dreams are considered inconsistent and illogical, lacking value as a subject of research. However, among the various perspectives that consider dreams as a valuable subject of research, the predominant traditional view involved interpreting dreams from a physiolog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dreams are considered to be caused by physiological factors and they are merely expressions of bodily stimuli during mental activity. In contrast, Freud interprets dreams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Freud's view, dreams are meaningful and valuable psychological activities that occur in the active mind during the state of sleep.

Freud sought to explore not only the explicit content of dreams but also the unconscious that lies beneath by analyzing various cases of dreams. Freud referred to the phenomenon, in Freud's terms dream-work distortion, where the latent thoughts causing the dream are modified and transformed into dream. Taking into account this dream-work distortion, dreams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the 'disguised fulfillment of repressed wishes'. According to Freud, dreams are a unique activity distinct from awaking conscious activity, and therefore, dreams are sufficiently valuable as a subject of psychological research. Freud aimed to elucidate the causes and mechanisms of dream formation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Freud asserts that a crucial factor in shaping dreams is the concept of drive, and considers the mind to be constantly stimulated by these drives. According to Freud, not only do drives play a role in forming dreams, but they are also a fundamental force guiding human life. He views human life as a place where these drives are negotiated and expressed within social norms. In this regard, Freud's dream psychology can be seen as a theory of drive and, by its implications, a theory of life. In that drives that Freud identifies as the driving force of life correspond to the hidden depths of the mind, sometimes the drive is confused with the instinct. However, desires and instinct can be said to refer to different two dimensions of the mind.

On the other hand, Erikson also attempts to illuminate Freud's theory of drive more sharply while discussing the stages of ego development. By considering it possible for life to fully realize drives, Erikson explains the process which leads to this complete state in the context of the stages of ego development. However, the theories both of Freud and of Erikson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interpret the mind at the experiential dimension.

The first dimension of the mind, which can be experientially

perceived, includes things like appetite, sexual desire, and other sensations. The second dimension of the mind consists of things that cannot be experientially perceived but are reasonably assumed to exist, such as a young child's boundless desire for play or the formless moral power of an outstanding person. The former can be referred to as the experiential dimension of the mind, while the latter can be referred to as the metaphysical dimension of the mind.

Freud's discovery of drive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of dreams as a driving force in human life, corresponds to the experiential dimension of the mind. However, regarding the driving force of human life solely as this experiential dimension has its limitations. In order to explain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of human life, the concept of the instinct that serves as the standard for various drives must be elucidated. It is precisely this instinct that correspond to the metaphysical dimension of the mind.

In various human activities, there are particular activities closest to these metaphysical instincts—religion and education. Religion, through scriptures and rituals, facilitates the restoration of instinct, while education, mediated by concepts, makes the recovery of these instinct possible. However, scriptures and rituals express instinct somewhat directly, whereas concepts manifest them only indirectly. Nevertheless, it cannot be said that education, using concepts as a medium, lacks in the restoration of instinct. It simply requires a longer period of effort compared to religion. This is precisely why education can be an earnest pathway for the restoration of instinct.

In this way, instinct is the fundamental force of the mind that should be restored and it can be restored through major life activities such as religion and education. Freud's theory of drives, however, does not sufficiently illuminate the place of the instinct of our life. This means that Freud overlooked the journey in which our lives involve the restoration of instinct through religion and

education. Neverthele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act the instinct has become a subject of psychological exploration in modern times is largely indebted to Freud's theory of drives. Setting his intention aside, Freud's drive theory revitalizes interest in the metaphysical dimension of the mind, the instinct.

Keywords : Freud, Erikson, dream psychology, drive, instinct, religion, education